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이승희^{1*}, 황동룡²

¹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²前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A Study on Policy Plan and Promotion Tasks for Revitalization of the 6th Industry

Seung-Hee Lee^{1*}, Dong-Ryong Hwang²

¹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²Outpatie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도시와 농어촌과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수행되어 왔다. 이제 농업은 1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와 3차산업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존 농어촌 정책과 6차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그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6차산업의 활성화의 성공을 위해선 체계화된 지원 제도, 6차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가치사슬 형성지원,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이 필요하며, 그 외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통한 농어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6차산업의 활성화, 융복합, 협업체계, 가치사슬, 4차산업혁명

Abstract As the income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widens and profitability declines, various studies and practic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activation of the 6th industry as a way to inspire the rural economy. Now, agriculture needs to become a 6th industrialization that creates new value by converging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not just the primary industry. In this study, various previous studies on the government's existing rural policy and the activation of the 6th industry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ere examined. For the success of revitalization of the 6th industry, a systematic support system, training of experts in the 6th industry,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llaboration system,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a value chain, and applic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re necessary, and various other problems can be solved. Policy plans and future tasks for revitalization of the 6th industry that will lead to innovative chang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presented.

Key Words : Revitalization of the 6th industry, Convergence, Collaboration system, Value chain, 4th industrial revolution

1. 서론

농업은 이제 단순히 생산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생산에 가공, 유통, 체험 등이 함께 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1차산업인 농업이 2차산업과 3차산업과 융복합하여 6차산업화 되었을 때 부가가치

도 상승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농민의 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농업의 6차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장 개방, 농촌의 고령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으로 6차산업화가 절실하게 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Lee(marketing@kumoh.ac.kr)

Received March 18,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April 13,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그러나, 6차산업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과 정책대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정책수립에 있어 정부부처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부처 간,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제시와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하지 못했다. 그리고 참여주체의 역량 부족이나 각 사업에 유사성이 많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조직의 미흡 및 6차산업의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농어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되어왔던 다양한 선행연구와 6차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그동안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요 정책방안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2.1 6차산업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6차산업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과 기관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6차산업화'의 개념은 일본의 농업경제학자인 이마무라 나라오미 교수가 1998년 최초 사용한 용어인데 농업이 1차산업을 넘어 2차산업(제조 등), 3차산업(서비스업 등)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라 하였다[1].

가장 보편적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의에 따르면 '6차산업'을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 하고 있다[2]. 한편, 박미옥(2017)의 연구에서 6차산업화의 개념은 단순히 1차산업(생산)+2차산업(가공)+3차산업(서비스)=6차산업의 단순집합이 아니라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6차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3].

농촌진흥청 사업매뉴얼(2014)에 따르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유형을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유통중심

형, 관광·체험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중심산업 유형에 따라 1차산업 중심형, 2차산업 중심형, 3차산업중심형, 1·3차 융복합형, 2·3차 융복합형, 1·2차 융복합형, 명품·명인·명소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추진 주체에 따라 생산자 주도형, 여성·고령자 주도형, 지자체·농협 주도형, 도농 교류 주도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4]. 6차산업이 발전하고 진화함에 따라 그 유형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2 참여주체의 참여방안 및 추진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연구에 의하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각부서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마련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강조하였다[5].

권용덕(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간지원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이 사업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며, 각 부문별 독립성과 부문 간 상호연계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중핵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며, 이를 통해 총체적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6].

2.3 6차산업화의 영향력 및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유영봉(2015)의 연구에서는 그동안 생산효율성에 대한 한국 농업의 지역별 비교 연구가 부족했고 한국 농업은 2000년대 이후 생산력 감소, 산출물 감소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각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

손상철·이승희(2018)의 연구에 의하면 6차산업화는 소득증대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6차산업화 융·복합 성장 단계에 따라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소비자중심으로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별성있게 농산물 생산과 제품화에 주력하면서 기능과 감성 서비스를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Gobe and Zyman(2001)은 체험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에게 브랜드 선호도와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성적인 체험을 강화하면 소비자는 높은 가치를 인식하고 오래 기억하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9]. 따라서 이러한 체험 마케팅활동이 6차산업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6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1 6차산업 현황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증사업자수는 '15년 802개소, '16년 1,130개소, '17년 1,397개소, '18년 1,522개소, '19년 1,623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1년 4월 1,920개소가 있다[10].

6차산업시장 규모는 2016년 5.7조로 2014년 대비 1조원 증가하였고 6차 산업 관련 창업자수는 2014년 752명에서 2016년까지 1,785명으로 1,033명이 증가되었다. 이 기간 중 신규 고용 창출은 2,856명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 인지도도 2014년 38.3%에서 67.3%로 증가하였고 인증사업자수도 379개소에서 1,130개소로 751개소가 증가하였다[11].

Table 1. 6th Industry Status

	2014	2016	increase
Consumer awareness	38.3%	67.3%	29%
Market size	KRW 4.7trillion	KRW 5.7trillion	KRW 1trillion
Number of founders	752 occupants	1,785 occupants	1,033 occupants
Number of certified businesses	379 places	1,130 places	751 places
Average sales growth rate of certified business operators	11.2%	11.1%	-0.1%

Sour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ress Release(2017. 3. 2)

3.2 6차산업화 전문인력 인력수급 전망

6차산업화 전문인력 수급 전망치를 감안하여 수요대비 최대 공급 인력을 분석해 보면 6차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공급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2013년 농가를 통해 최대 공급 가능한 인력(1,753천명)대비 6차산업화 전문인력(369천명)은 20.9%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최대 공급가능인력 1,709명 대비 수요인력은 562천명으로 32.9%, 그리고 2025년에는 최대 공급가능인력 1,447천명 대비 수요인력 725명으로 50.1%로 올라갈 전망이다[12].

Table 2. Prospects for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specialized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Unit: thousand people)

		2013	2020	2025	
Manpower demand	Subtotal (A)	369	562	725	
	6 th industrialization Management	Farm management	287	347	398
		Agricultural corporation	82	215	327
Manpower supply	Maximum available manpower through farmhouse (B)	1,753	1,709	1,447	
Manpower in demand compared to manpower available for supply (A/B)		20.9%	32.9%	50.1%	

Source: S. J. Ma et al.(2015), A plan for fostering experts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for the future growth of agricultu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 36

3.3 6차산업의 정책적 문제점

6차산업화 정책은 다양한 부처와 부서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6차산업의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지역여건 반영이 없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6차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특화 분야, 여건과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해당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13].

둘째,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설지원, 교육, 마케팅/홍보 등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이 잘 안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의 여타 부처 간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셋째, 사업 시행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미흡함을 들 수 있다.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보다는 보조와 지자체 행정에 너무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참여 주체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14].

넷째,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 내의 특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반을 두다 보니 지원되는 기술개발이나 홍보 및 마케팅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13].

다섯째, 앞으로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의 각종 법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여섯째, 1차산업에 기반한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융복합 연계함으로써 6차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그 개발목적이 부합하나, 2차, 3차산업에 대한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어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14].

일곱째, 오현석(2015)은 농촌개발정책이 지역의 현실인식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었고 특히 농촌개발정책의 핵심이 되고있는 농촌성, 공동체성, 농촌 어메니티 등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였다[15].

4. 6차산업화의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4절에서는 향후 6차산업화의 정책방안과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4.1 6차산업화의 정책방안

첫째, 실효성 있는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연계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

둘째, 정부가 농림수산물의 6차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6차산업화와 관련한 각종 법률의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

셋째,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부분의 정책으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개선과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구축과 관련 육성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16].

넷째, IoT, 3D 프린팅, AI, 로봇틱스,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이 농업발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6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IT기술의 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1, 2, 3차산업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융복합된 6차산업의 다양한 ICT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17].

4.2 6차산업화의 추진과제

첫째, 6차 산업화를 위한 체계화된 지원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융합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그리고 융합기술의 사업화 및 융합제품의 시장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1].

둘째, 6차산업화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이를 위해 6차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18].

셋째, 6차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선 지역 내 협업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도농 연계를 통한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거나 소비에 기반한 사업체계의 확충에도 정책의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내 생산, 가공, 유통 부문에서도 가치사슬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19].

넷째, 2차산업, 3차산업을 위한 개발목적의 토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참여주체의 영세하고 미약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컨설팅지원, 공동사업화 유도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앙의 각 부처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잘 진단해서 그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 분야에 4차산업혁명관련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센서, 모바일 등을 적용하여 6차산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20]. 즉, 생산부문에 식물공장,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센서와 제어기술 및 빅데이터 기술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가공 부문에서도 선별, 가공, 포장 등에서 지능화된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통 부문에서도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유통요소관리 및 이력추적 등에 4차산업혁명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21]. 또한, 각종 센서 기술, 자동 제어기술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효율적인 농업 생산시스템기반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확한 시장추세 분석도 가능케 할 수 있다[22]. 이를 통해 단순 1차산업 농업을 극복하고 IT, BT, ET, N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되고 접목되어 농업을 더욱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23].

5. 결론

농어촌경제를 되살리는 대안으로 6차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과 과제추진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나 성과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즉, 지역 실정과 적합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참여주체의 역량부족, 사업들의 유사성과 중복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6차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추진되어온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이업종 간 교류와 정부정책의 뒷받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 다양한 주체들의 가치사슬에의 참여,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개척, 조직력(중간조직)의 강화, 지역 내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맞춤형 컨설팅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공동사업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도 중요하지만 6차산업의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기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도시와 농촌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향후 연구에서는 6차산업 정책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평가나 성과에 대한 검증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과 우수사례발굴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2018.

REFERENCES

[1] H. B. Yang. (2015).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Task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10-167.

[2] Agricultural and Fishery Food Education and Culture Information Center. <https://www.6차산업.com:448/home/main.cs>

[3] M. O. Park. (2017). Green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Case Study on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Korean society and administration research*, 28(2), 111-144.

[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4). Business Manual by Type of 6th Industry. 16.

[5] M. Mardell. (2017). Facing the robotic revolution. Retrieved from http://www.bbb.com/news/techonolgy_-3928030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Regarding the 1st Rural Convergence Industry Fostering and Support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basic plan. 69.

[6] Y. D Gwon. (2014).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promotion tasks. 68.

[7] Y. Y. bong. (2015). Regional Analysis on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of Korean Agriculture : 1955~2013.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2(3), 487-506.

[8] S. S. Cheol & S. H. Lee.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 and Efficiency Analysis of 6th Industrializa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5(2), 7-16. DOI : 10.22678/JIC.2017.15.2.007

[9] Gobe, M. & S. Zyman. (2001). *Emotional Branding: The New Paradigm or Connecting Brands to People*, New York : Allworth Press.

[10] 6th Industry Support Center. <https://www.6차산업.com:448/home/biz/company.cs?m=12>

[11] Ministry of Agriculture. (2017. 3. 2). *Food and Rural Affairs Press Release*.

[12] S. J. Ma et al. (2015). A plan for fostering experts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for the future growth of agricultu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6.

[13] D. H. Park. (2019), *The 6th Industry Status and Improvement Plan in Rural Area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griculture Master's Thesis, 29.

[14] Y. S. Lee et al. (2018), A Study on Participation in the 6th Industrial Cluster Specialized Complex. *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167.

[15] O. H. Sug. (2015). Rural Development Policy: From Menu to Goal-Oriented. *Insight GSNI* 201, 248.

[16] C. H. Baek et al. (2018). Problems and Strategic Plan for Policy and Support of the 6th Industry. *J Korean Soc Qual Manag*, 46(2), 243-258.

[17] K. H. Kim. (2018). Establishment of the 6th

Korean industrialization model of agriculture. *TOUCH* 20, 16.

- [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Research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6th industry through statistics and trend analysis of rural industr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68.
- [19] J. D. Chae. (2016). Directions and Tasks for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Korea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14.
- [20] J. S. Jung. (2018).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Utilizing the Technolog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11.
- [21] Y. H. Yu. (2017). Understan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agriculture. *北方農(J. North. Agri. Res.)*, 40(1), 1-11.
- [2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Analysis of future industrial policy again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V: Analysis of upbringing and upgrading policy according to the field of industr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3] H. Gebauer, A. Gustafsson & L. Witell. (2011).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Service Differentiation by Manufacturing Compani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4(12), 1270-1280.

이 승 희(Seung-Hee Lee) [종신회원]



- 199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4년 2월~현재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09년~현재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수석부회장

· 관심분야 : 마케팅, 전자상거래, 유통, 컨설팅
 · E-Mail : marketing@kumoh.ac.kr

황 동 룡(Dong-Ryong Hwang) [정회원]



- 2007년 8월 :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7년 2월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7년 2월~2020년 8월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 2018년 10월~현재 : 에듀윌 운영교수
 · 관심분야 : 마케팅, Big Data, 부동산
 · E-Mail : qhgus7@nate.com